

신 EU 기후적응 전략의 주요 내용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김 현 진 (maxnlio@kdb.co.kr)

- ◆ EU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'21.2월 '신 EU 기후적응 전략'을 발표
 -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완화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도 중요
 - ①영리한 적응, ②체계적 적응, ③신속한 적응 및 ④국제적 행동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
- ◆ 동 전략은 건축, 순환경제 등 유럽 그린딜의 세부정책과 병행 운영될 계획이며, EU 정책금융기관이며 기후은행인 EIB의 향후 금융지원 방향에도 영향

□ EU는 기후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·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고 '50년까지 완전한 기후적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'21.2월 '신 EU 기후적응 전략*'을 발표

* New EU Strategy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: '13.4월 발표된 EU의 기후적응 전략 및 이에 대한 '18.11월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·보완되었으며, EU의 구체적인 기후적응 전략 등을 포함

-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기후변화 완화(Mitigation)는 이미 진행 중인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방지할 수 없어 기후변화 적응(Adaptation)을 위한 역량 확보가 중요
 - 기후변화 적응은 ①미래 인적·자연적·물적 손실 회피, ②생산성 증가 등 경제적 이익 창출, ③사회·환경·문화적 혜택 등 3가지 효과(Triple Dividend)를 창출함으로써 기후대응에 기여할 수 있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 필수적
 - 한편 기후변화 완화는 '17~'18년 글로벌 기후금융의 93%(연평균 5,370억달러)를 차지했으나, 기후변화 적응은 5% 수준으로 저조[Climate Policy Initiative(2019)]
- 이에 EU는 동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기후적응을 위한 세부 전략 및 이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
 - 최근 EU 대내외적으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홍수, 가뭄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어 기후적응을 위한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
 - EU에 따르면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역대 경제적 손실은 이미 연간 120억 유로 이상으로, 산업화 이전대비 3℃ 이상 기온이 상승할 경우 연간 1,700억 유로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

□ EU는 ①영리한(Smarter) 적응, ②체계적(More Systemic) 적응, ③신속한(Faster) 적응 및 ④국제적 행동 강화를 기후적응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

- 우선 영리한 적응, 체계적 적응, 신속한 적응을 위한 세부 전략 및 이행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기후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

- 더불어 기후적응 전략의 이행과정에서 국가·지역·노동자 간 기후변화 위협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회원국 내 결속과 공정성도 강조

신 EU 기후적응 전략별 주요 내용

구분	세부 전략	EU의 이행방안
영리한 적응	①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기후 의사결정	Horizon Europe, Digital Europe, Copernicus 등을 활용하여 기후 지식격차 해소 지원 등
	② 정확한 기후 리스크 데이터의 기록수집·공유	데이터 기록·수집·공유의 기준 마련, Risk Data Hub를 통한 중앙 기록 지원 등
	③ Climate-ADAPT를 공식 지식플랫폼으로 활용	산발적 정보처리 메커니즘 통합 등
체계적 적응	① 기후적응 측정 기준 마련, 정책 일관성 유지	회원국 협력으로 국가 기후적응 전략 지침 마련 등
	② 지역별·개인별 기후적응의 공정성 증진	지역 기후적응 전략 및 지원기구 운영 등, ESF+, Erasmus+ 등 프로그램을 통한 근로자 지원
	③ 국가 재정 프레임워크에 기후적응 내용 반영	공공 재정에 미치는 기후 리스크의 잠재적 영향 측정방법 개발, 역내 기금과의 상호보완 강화 등
	④ 자연기반 솔루션(Nature-based Solutions) 촉진	자연기반 솔루션의 재무적 영향을 활용한 금융기법 개발 등
신속한 적응	① 기후적응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제고	EU Taxonomy ^{주2)} 의 지속 개발 등
	②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후적응 리스크 경감	중요 인프라 건축개조시 기후적응 기준 반영 등
	③ 기후보호격차 ^{주1)} 의 감소	유럽보험연기금청(EIOPA)과의 협력을 통한 금융상품 개발, 역내 자연재해 보험 촉진 등
	④ 물의 지속가능성 확보	제품의 절수 요건 강화, 지속가능 토지이용 계획 촉진 등

주 : 1) 기후 관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중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중

2)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, 판별하기 위한 EU의 과학적·기술적 기준

자료 : EC(2021.2), "Forging a climate-resilient Europe : The new EU strategy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"

- EU는 기후변화의 연쇄효과가 미치는 사회·경제·생태계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행동을 강화할 계획
 - 파트너 국가의 기후적응 계획 및 NDC(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)의 수립·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활동을 강화할 예정
 - 또한 역내 기금, GCF, Adaptation Fund* 등 국제기금 활용으로 기후적응을 위한 글로벌 기후금융 확산 및 민간투자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
 - * '01년 설립된 국제기금으로, 교토의정서에 입각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금융지원

□ 동 전략은 유럽 그린딜과 병행 운영되며, EIB의 향후 금융지원 계획에도 반영

- EU는 동 전략이 건축, 생태계, 식품, 산업(순환경제) 등 유럽 그린딜(European Green Deal)의 분야별 정책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행되도록 지원할 예정
 - EIB(European Investment Bank)도 '20.11월 발표한 '기후은행 로드맵 2021-2025'에서 EU의 기후은행으로서 기후적응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의지를 표명